

지 상 범 석

남을 해칠 수 없어요”

나. 道를 성취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나와 대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산천초목과 동물·식물계, 광물계가 모두 뿌리를 같이 합니다.

만물을 동물·식물·광물계로 구분하던 것이 해방 후에는 동·식물계와 광물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광물계에서조차 유기물(有機物)이 발견되어 예전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40년~50년전에 발견한 만물의 원소(元素)내지 소립자(小粒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3천년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전체와 같고 전체는 하나와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과 업장에 가려 믿지도 않고 알고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를 공유한 60억 인구

불교는 우주과학입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주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부처님의 위대성과 혜안(慧眼)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은 한 사람의 피가 60억명의 혈통을 지닌 채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컴퓨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양친(兩親)의 피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피를 받았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조(祖)

혈통이 섞여지면서 궁극에는 같은 피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형만으로 피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형태도 어릴 때 헤어지면 같은 혈통임을 알 수 없듯이 ‘피’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얼굴이 조금 노랗다고 혹은 푸르다고 해서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는 못된 습(習)과 악업(惡業)을 지으면서 병생을 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일미진중 합시방(一微塵中 含

양은 ‘화’, 뿌리에 통하는 공기는 ‘중’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미 한송이를 피우는 데도 작게는 지구 전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受胎)가 이뤄지는 과정도 부모의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역계의 정자(精子) 중의 1개가 시공(時空)의 한 순간에 적절한 환경을 만나 난자(卵子) 1개와 결합하면서 이뤄지는 것이 소중한 한 생명체입니다. 인간 역시 대우주가 총동원되어 탄생됩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더불어 사는 모든 이를 나락(奈落)에 빠뜨린다면 이 책임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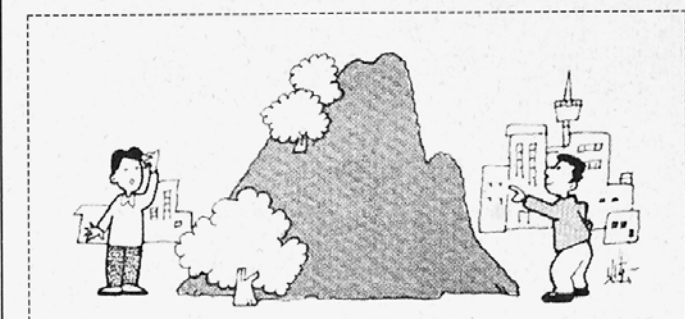
‘나는 나요 너는 너’라는 인식은 옳지 않습니다. ‘천지가 동근이요 만물이 동체(同體)’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이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전체와 다름이 없고, 전체는 하나와 같다’는 이 말씀은 우리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과 업장(業障)에 가려 믿지도 않고 알고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와 개인을 균형되게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사는 것은 전체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삶이 방탕하게 되면 드디어는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의 공론(公論)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전체와 개인을 위해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8

양행진

피동과 입자

어떤 물체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경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동과 입자에 대한 물리학에서의 이해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든가 프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 콤프톤 효과 등에 의하면 빛은 입자성을 가지며 파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물체 두가지 성질 함께 지녀 이분법 고집하면 부분만 보게 돼

이 에너지 전달의 역할을 맡는 물체를 매질이라고 한다. 가령 말하고 듣는 것을 생각해 보자. 말한다는 것은 성대를 울려서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는, 즉 성대에서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 에너지가 공간을 타고 흘러가다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듣게 한다. 이 과정에서 성대에 있던 공기 분자가 상대방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오직 공기의 진동 에너지만이 전달된다.

따라서 파동 현상에서의 매질은 입자인 물체와는 달리 오직 진동하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잘 익은 가을 논의 이삭들이 출렁일 때, 비 이삭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삭의 물결이 에너지로서 전달되는 것과 같다. 이상이 고전 물리학에서의 입자와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실제로 뉴턴은 빛을 입자로 생각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무지개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뉴턴의 명성을 따르던 많은 물리 학자들도 오랫동안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영(Young)이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간섭실험을 한 후, 물리학자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맥스웰이 완성한 전자기학에 의하면 빛은 전자기 파동이다. 이처럼 고전물리학에서의 대상은 파동이 아닌 입자여야만 한다.

어떤 물체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경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동과 입자에 대한 물리학에서의 이해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든가 프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 콤프톤 효과 등에 의하면 빛은 입자성을 가지며 파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적 속성에는 에너지와 진동수가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너와 나 관계없다’ 생각할때 ‘똥’ 싹트게 돼 전체와 개인 균형되게하는 지혜 배워야

부모의 피를 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원리로 따져 나가면 2세대는 6명의 피가 흐르고, 3세대는 14명의 피가, 10대에는 2백46명, 20대에는 1백1만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숫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0대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은 2억 조상들의 혈통을 지닌 채 태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또한 더 오래된 40대의 조상이 있는 후손들은 1백억의 혈통을 가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의 지구인구를 훨씬 넘는 수치이기도. 물론 이 계산은 컴퓨터를 통해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세상 이곳이 나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혈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 인류가 남이 아닌 수많은 조상의 피(血)가 섞여서 자신을 번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 우랄 알타이 민족의 피를 지닌 채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다 정착한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오랜 옛날부터

‘十方이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티끌안에도 천지만물이 담겨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피 함량에도 1백억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따르게 되면 남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제 피를 자신이 죽이는 여러서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체동근(一切同根)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자손과 이웃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인(內圓) 마당의 장미꽃 한송이도 하늘에서 푹 떨어지듯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만물이 총동원되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그 장미꽃 한송이입니다.

장미꽃이 세만 심는다고 피는 게 아닙니다. 싹이 돋으려면 땅과 습기와 따뜻한 태양과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총동원 되어야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땅이 ‘지’에 해당된다면, 습기는 ‘수’에, 따뜻한 태

아름답고 생생한 내 모습은 내가 마음 먹은대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우주의 총체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장미꽃이든 제 혼자 컸다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늘을 거역하는 자가되지요. 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했습니다.

장미꽃 한송이도 우주

역천자는 사리(事理)를 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성공하겠다고 힘을 내세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지의 질서에 어긋나면서 살기에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는 교통질서를 어기며 길을 건너다가 뜻하지 않은 불변을 당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내 몸 하나가 질서를 어기면 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어긋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풍기마니 속의 풍 하나가 씩으면 가마니 전체의 풍이 씩는 이치와 같지요.

하면서 주위를 건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편리하고 하기 보다는 주위부터 먼저 관하게 해주는 자리이다(自利利他)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개미도, 가마니 속의 풍도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시아가 좁고 생각의 폭이 넓기에 개미, 쥐, 곤충 등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지만 생태학이나 환경론에서는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속의 새곤 하나, 티끌 하나도 남을 편하게 존재케 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만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안됩니다. 모든 약이 ‘천지가 한마음, 한뜻’임을 모르는 사실에서 일어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른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一切萬物이是我體요 自他主종이本是無로다. 일체만물이 내 몸이요 나와 남과 주관과 객관이 본래 無로다.

성악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내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부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더라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아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프 보하바(appa deepa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 ‘나는 조약돌로 빛’고 부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부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도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부다가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부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부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부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소 리조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욱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